10년 만에 4% 대 물가 현실?…정부, 유류세 인하폭 확대 유력

물가 5개월째 3%대↑…우크라 사태 이달 지표 반영

평균 휘발유 가격ℓ 당 2000원↑…가공식품 가격 상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가 충격'으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여년 만에 4%대까지 치솟을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공공요금 인상과 급등한 국제 곡물 가격 등도 국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물가는 고공 행진하는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기 둔화 조짐까지 보이자 정부는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유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대외여건 불확실성은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3.2%) 9년 8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서더니 11월(3.8%), 12월(3.7%), 올해 1월(3.6%), 2월(3.7%)까지 5개월 연속 3%대 고물가 흐름을 이어갔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물가 영향이 5일 발표되는 지표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이 차관의 발언은 3월 물가 상승률이 3%대 후반을 넘어 2011년 12월(4.2%) 이후 10여 년 만에 4%대까지 오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가 불안정이 지속되는 배경에는 국제유가 상승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국제유가는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반영된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 요인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물가 상방 압력도 거세진 셈이다.

실제 3월 평균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11달러로 2월 평균 92달러 대비 20.3% 상승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평균 휘발유 가격도 ℓ당 2000원을 넘어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 확인 결과 1일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64원을 보였다.

날뛰는 곡물 가격도 물가 상승의 위험요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해외곡물시장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시카고선물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t당 377.44달러로 지난해 말(283.20달러)보다 33.27% 상승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지난달 7일에는 작년 말보다 67.89%나 뛴 475.46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른 국내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도 지속되고 있다.

이달부터 반영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월부터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을 평균 1.8% 인상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도 킬로와트시(㎾h)당 6.9원 올렸다. 4인 가구 한 달 평균 약 2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이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물가가 들썩이자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에도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기간을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류세 인하 폭은 현재 20%에서 30%로 확대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0%로 확대하면 휘발유는 현재보다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8원 더 내려간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 교통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합해 ℓ당 820원이다. 유류세 20% 인하로 현재 ℓ당 656원 부과되는데 30%로 인하하면 ℓ당 574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도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인수위 요청대로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할 경우 세수 감소 규모는 20% 때(1조4000억원)보다 7000억원 늘어난 2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곡물 가격 상승으로 가공식품과 외식물가가 오르는 점을 고려해 식품·사료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또 국제 곡물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신속 수입검사 등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선옥기자

삼성전자, 2022년형 사운드바 2종 국내 출시

상반기 국내에 13개 이상 신모델 출시…"9년 연속 세계 1위 달성할 것"

삼성전자가 3일 2022년형 사운드바 2종을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최상위 모델인 'Q시리즈' HW-Q990B와 초슬림 디자인이 돋보이는 '슈퍼 슬림 사운드바' HW-S800B로, 음질 향상은 물론 TV와의 연결성을 한층 강화하고 디자인 측면에서도 혁신을 이뤘다. 출고가는 HW-Q990B 189만원, HW-S800B가 89만9000원이다.

삼성전자는 Q시리즈와 슈퍼 슬림 사운드바를 포함해 상반기 내 13개 이상의 신모델을 국내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Q시리즈 HW-Q990B는 11.1.4 채널 스피커와 '돌비 애트모스'를 적용해 3차원 서라운드 사운드를 제공하며, 기존 모델 대비 개선된 'Q심포니' 기능이 적용됐다.

Q심포니는 TV와 사운드바를 연결했을 때 두 기기에 설치된 스피커를 동시에 이용해 최적의 서라운드 사운드를 구현해 주는 삼성 독자 기술이다. 기존에는 TV의 일부 스피커만 활용했지만 신제품에서는 TV 스피커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돼 한층 풍부한 음향을 구현한다. 삼성 네오 QLED 8K TV(QN900B 시리즈)와 연결할 경우 최대 22채널(사운드바 16채널 + TV 6채널) 스피커를 모두 활용해 압도적 3차원 입체 음향을 구현한다.

별도의 HDMI 케이블 없이 와이파이로 2022년 삼성 TV와 사운드바를 연결하는 기능을 자체 내장, 돌비 애트모스 3차원 공간 음향을 무선으로 감상할 수 있다. 공간에 최적화된 음향을 제공하는 스페이스핏 사운드와 오토 이퀄라이저 기능도 탑재했다.

개선된 성능에 맞춰 디자인 역시 메탈 소재를 활용해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했다. LED 디스플레이 상태 창도 전면에 배치해 기기의 작동 상태나 정보 등을 더 편리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

슈퍼 슬림 사운드바 HW-S800B는 높이 38mm·두께 40mm의 초슬림 디자인이 특징으로 프리미엄 TV 디자인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삼성 '더 프레임'과 함께 벽에 걸었을 때 돌출되지 않고 어느 공간에도 잘 어울리는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으며,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더 프레임'의 베젤 색상과 매칭되는 브라운, 티크 색상 커버 스킨도 연내 출시될 예정이다.

슈퍼 슬림 사운드바는 초슬림 사이즈이나 좌우 양쪽에 두개의 탑 스피커를 탑재하고 3.1.2 채널을 구현해 돌비 애트모스의 강력한 서라운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2013년말 미국 캘리포니아에 삼성 오디오랩을 설립하고 최상의 사운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신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Q 심포니도 삼성 오디오랩의 전문 튜닝을 거쳐서 TV와 사운드바간 최적의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한 연구 결과물이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성일경 부사장은 "홈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때 TV 화질 못지 않게 사운드 경험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더 풍부해진 음향과 감각적인 디자인의 신제품을 통해 글로벌 사운드바 시장에서 9년 연속 1위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실납요금 직접 설계·비교해봐요"…KT 요금계산기 선봬

"통신 3사 중 적정 결합 할인 제시 기능 유일"

KT가 고객이 직접 실 납부 요금과 가장 근접하게 휴대폰 월 납부 요금을 설계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요금계산기' 서비스를 지난달 24일부터 공식 온라인몰 KT샵에서 선보였다고 3일 밝혔다.

요금계산기는 고객이 신규 단말 구매 시 직접 온라인으로 납부 요금을 설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간편 조회 서비스다. 고객은 요금계산기를 통해 결합, 제휴, 약정 등 다양한 할인 조건을 선택하고 이용정보 기반 맞춤 요금제 등을 선택해 월 납부 요금을 미리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그동안 고객이 신규 단말 구매 시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했던 예상 납부 요금은 공시지원금 정도만 반영된 수준으로 결합, 약정 및 제휴 할인 등이 적용되지 않아 실 납부 요금과 차이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금제, 결합 혜택 가운데 개개인의 이용패턴에 적합한 최적의 요금제와 서비스를 선택하려면 통신 매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콜센터 전문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KT 요금계산기를 통해 이제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고객이 직접 이용정보 기반 단말, 요금제 등을 추천받아 상품정보를 비교하고 요금 설계를 할 수 있게 됐다.

고객은 설계한 요금으로 바로 온라인 가입을 진행하거나, 이 내용을 가지고 궁금한 점에 대해 전문 상담사와 좀 더 효과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기존 결합 할인 내역을 불러오거나 신규 결합 예정 회선 수(가족 수)를 입력하면 적정 결합 할인 조건을 제시하는 결합 할인 반영 설계 기능은 통신 3사 중 유일하다. 요금계산기의 주요 기능으로는 ▲제조사, 사이즈, 용량 등 조건별 추천 기능이 추가된 단말 제안 ▲이용정보 기반 고객 특성별 요금제 추천 ▲적정 통신 결합 할인 조건 제시 ▲제휴카드 등 기타 할인 선택 ▲기존 납부요금 비교 ▲설계 내용 문자 발송 및 오프라인 상담 연계 ▲시뮬레이션 결과 연계 KT샵 주문이 있다.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며 KT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요금계산기 서비스를 고객이 직접 이용해볼 수 있도록 출시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15일까지 요금계산기를 통해 온라인 단말 주문을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LG 스탠바이미, 발뮤다 등 인기 가전을 추첨해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4월 30일까지 요금계산기로 휴대폰 예상 납부 요금을 문자 발송한 이벤트 응모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단, 스타벅스 쿠폰은 선착순 지급으로 물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KT 공식 온라인몰인 KT샵을 참고하면 된다.

이슬비기자

"올 여름, 작년만큼 덥다"…가전업계 에어컨 판매 돌입

기상청 예보에 올초부터 에어컨 수요 증가

여름을 앞두고 에어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가전업계의 경쟁이 시작됐다. 업계는 올해 무더위가 예고된만큼 여름이 오기 전 제품을 미리 구비하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겨냥하고 있다.

3일 기상청은 '2022년 여름 기후전망'에서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지난해는 연평균 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이에 일찌감치 에어컨을 장만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업계도 이에맞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파세코는 이달 중 2022년형 창문형 에어컨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3월 창문형 에어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파세코는 여름철 수요가 몰리는 것에 대비해 지난 달부터 창문형 에어컨 판매를 시작했다. 연초부터 판매가 급증하면서 한달새 지난해보다 4배 이상 판매량이 늘었다.

파세코 관계자는 "작년과 같은 물량 부족 대란을 겪지 않고 성수기 원활한 물량 공급을 위해 1월부터 듀얼인버터와 싱글인버터 라인업을 먼저 생산 개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달 30일까지 '무풍 에어디자인 페스티벌'을 실시한다. 2022년형 무풍 에어컨을 구매할 경우 행사 모델에 따라 최대 40만원 상당의 캐시백 또는 포인트가 제공된다. 특히 2022년형 '무풍에어컨 갤러리 I' 구매시 로봇 청소기 '제트 봇' 또는 창문형 에어컨 '윈도우 핏'을 무상 증정한다. 구매 혜택은 유통사별 정책에 따라 캐시백·포인트·즉시 할인 등을 제공한다. 2022년형 스탠드형과 벽걸이형 무풍에어컨을 함께 구매하면 최대 2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무풍 시스템에어컨을 여러 개 구매시 최대 18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태환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스탠드형·벽걸이형 뿐만 아니라 시스템에어컨 등을 소비자 취향에 맞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5월 말까지 휘센 에어컨 사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올해 폭염이 예고된만큼 사용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다.

휘센 에어컨 사용 고객들은 LG전자 서비스 고객상담실에 사전점검을 신청하면 문자 메시지로 필터, 리모컨 배터리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자가점검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LG전자 홈페이지 내 고객지원을 통해서도 자가점검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자가점검을 진행한 후 엔지니어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문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고객들은 LG 씽큐(LG ThinQ)의 '스마트진단'을 통해서도 자가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 LG 씽큐 앱의 스마트진단은 온도 센서, 인버터, 팬 모터, 컴프레서 등 에어컨 주요 부품의 기본 동작여부, 냉매 상태 등 33가지 항목을 점검한 뒤 이상이 감지되면 화면에 에러코드와 증상을 표시해준다.

오유나기자